

문화전당, 문화콘텐츠 활성화 거점으로

문화부 2017 업무 계획 발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점기관이 될 전망이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증액된 121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전당 활성화를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문화전당은 지역사회 문화예술·콘텐츠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정례화하고 문화예술계 대상 협력·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한국관광기술원 등 주요 기관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투자·수출 동반 추락 한국 퍼펙트스톰 온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주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에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세 가지 성장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한경연에 따르면, 권 원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서에서 한미경제확회가 주최한 조찬포럼에 참석해 ‘2017년 경제전망과 위기 가능성 점검’을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먼저 소비의 경우 “가계부채가 IMF 위기 때보다 크게 증가해 적자가 구 비중이 21%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활력을 찾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 불확실성이 IMF 위기 때의 3배에 달하고 있고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투자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도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부터 세계 교역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교역 증가율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IMF 위기 때보다 열악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지금의 위기는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무너지는 퍼펙트스톰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사물인터넷(IoT)과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화수도 조성 121억 투입...문화재단·광기술원 등 협력 강화

지리산권·남해안 클러스터 등 전남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도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시각예술 신인작가 공모전, 창·제작 인력을 대상으로 한 레지던시(임주 창작) 운영, 지역 공연예술 창작 지원 등 모두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육과 문화전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각종 전시 테크닉, 축제기획,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에 연인원 500명이 참여한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큰 축인 7대 문화권 사업에는 모두 121억원이 투자된다. 대상 사업은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문화산업 투자진흥지

구 지원시설 구축 등 8개 프로젝트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전남지역 관광활성화 사업도 포함됐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8개 권역별 관광개발 사업에 포함된 전남지역 관광자원 개발에도 예산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전남·북, 경남을 아우른 지리산권에 9억원, 서해안권에 47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에 2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4대 전략으

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13대 과제를 내놨다. 핵심 추진전략으로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 집중 육성, 스포츠산업의 성장동력과 등을 제시했다.

문화 향유계층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 확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부는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추락한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장 선정, 국고 보조금 지원 심사, 소속기관·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양림동산의 꿈 창립대회’가 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혁중 광주대총장, 김희재 광주지정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문화관광벨트 조성...1000만 관광시대 열자”

‘양림동산의 꿈’ 창립...대선 공약 포함 추진

광주에는 근대문화 공간인 양림동, 생태환경자원 광주천, 국립공원 무등산이 있다. 하지만 주목받는 이들 자원은 국내 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확고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되지 못하고 있다.

9일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 사업을 시작한 ‘(사)양림동산의 꿈’(이사장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숙원인 광주·문화관광자원을 아우른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양림동 기록교 사적·근대유적을 중심으로

로 광주천 생태복원, 남광주 전통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화 사적지, 무등산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광주의 문화관광 자원을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해 누구나 찾고 싶은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광주·전남지역 전체의 자연자원을 토대로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 브랜드를 개발해 관광객

200만 시대에서 1000만 시대를 앞당기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이들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창립대회는 김혁중(광주대 총장) 양림동산의 꿈 이사장, 김희재 광주지정장, 김양권 초대 헌법재판관, 임항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육영재단 재산형성 과정 조사

특검, 박 대통령 제부 신동욱씨 참고인 불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박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49) 공화당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박 대통령의 동생 근영씨의 남편이다.

특검팀은 신 총재를 상대로 육영재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가 오늘 다른 부분을 진술할 수 있지만 현재 특검에서 확인하려는 부분은 육영재단 재산 형성 관련 의혹에 한정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2007년 벌어진 육영재단 폭력사태 등 분쟁 과정에 최순실, 정윤희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육영재단 폭력사태는 근영 씨와 동생 박지만 EG 회장 등이 재단 운영권을 둘러

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 조직폭력배 등이 대거 동원된 사건이다.

특검은 신 총재를 상대로 육영재단 운영 문제와 재산 관계, 과거 폭력사태 등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와 관련 정보를 파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신씨는 이날 오후 특검에 출석하면서 최씨 등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없지만, 복수의 증언자로부터 (최씨·정씨가) 현장에서 왔다는 얘기와 정윤희씨가 식사를 샀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특별검사팀의 거듭되는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의혹 靑·문체부 4명 구속영장

특검, 김종덕 전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종덕 전 장관, 김상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구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블랙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들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무렵 문체부와 청와대 정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부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지켜온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존재를 시인했으나 “나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5월 첫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의 날	2	3 석가탄신일	4	5 어린이 날	6

정부, 5월 첫째주 최장 9일 ‘황금연휴’ 검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첫째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서 모두 공휴일이다. 5월 1일은 노동절로서 대부분의 대·중견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한다. 만약 5월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남치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봉나무뿌리 껍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담양 대덕 **특산품 호두농장**

◆ 식용호두 · 호두목목 분양판매 ◆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효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관리관리원 농산물 안정성 검토 무농약 인증

담양 대덕 호두농장
061-382-4728/010-3604-6712